해남군 주말부터 봄축제 릴레이 개막

23일 달마산 달마고도 힐링축제
4월 흑석산 축제·우리밀 축제
5월 공룡대축제까지 줄줄이 열려

해남의 봄이 열린다. 땅끝의 봄 축제도 함께 온다.

해남군은 오는 23일 달마고도 힐링축제를 시작으로, 4월 흑석산 힐링축제, 5월 연자연호마을 우리밀 축제, 해남 공룡대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축제의 첫 시작으로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 미황사와 달마산에서 달마고도 힐링축제가 펼쳐진다.

'자연 그대로의 힐링, 달마고도'를 주제로 달마산에 조성된 17.74㎞ 둘레길, 달마고도 걷기 행사가 진행된다.

완주하려면 5~6시간이 걸리는 달마고도 걷기와 함께 개막식과 축하공연, 걷기길 중간에서 만날 수 있는 숲속 버스킹 등이 열린다.

노르딕워킹·명상·다도·아로마 마사지 등 체험행사와 해남 막걸리가 제공되는 영수증 이벤트, 해남 특산물을 판매하는 달마장터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된다.

4월26~27일에는 흑석산 힐링축제가 계곡면 흑석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된다. 흑석산의 명물인 철쭉이 피는 시기에 맞춰 치유림 걷기와 각종 공연 행사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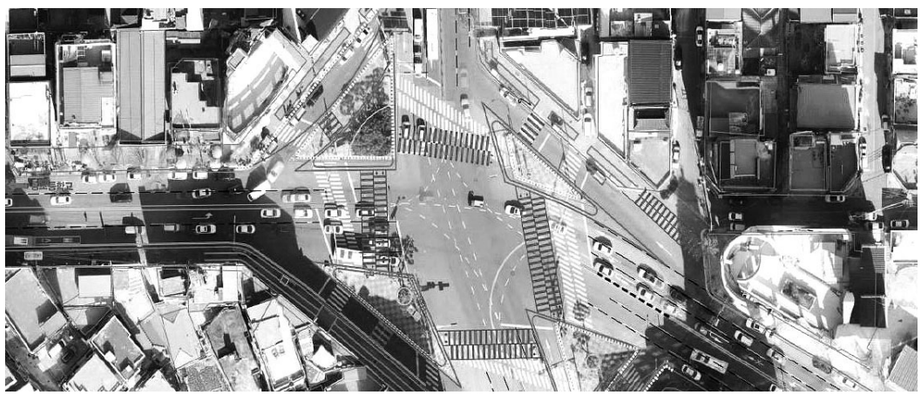
5월에는 4~6일까지 해남공룡박물관에서 어린이 공룡대축제가 개최된다. 어린이날 기념식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5월4일에는 황산면 연자연호마을에서 우리밀축제도 열린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주 달마고도 힐링축제를 시작으로 땅끝해남의 봄축제가 시작됐다"며"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봄이 찾아오는 곳, 해남의 건강한 봄기운을 가득 담아가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오는 23일 달마고도 힐링축제를 시작으로 해남에서 봄축제가 이어진다. 달마고도 트레킹. 〈해남군 제공〉



목포시 도로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중인 동부광장.

목포시, 교통사고 잦은 동부광장 등 도로 개선

목포시가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의 도로환경 개선에 나섰다.

해당 구간은 하당동 이바돔감자탕사거리(완료), 동부광장사거리(추진 중), 목원동 목포청연한방병원~북항동 서울병원사거리(예정) 등 3곳이다.

시는 사업비 총 12억여원을 투입해 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난 1월 완료된 하당동 이바돔감자탕사거리는 시인성 등이 좋아진 신호등으로 교체됐고 더 안전하게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도록 1개의 횡단보도 위치 등을 조정했다.

현재 공사 중인 동부광장사거리는 시장과 학교가 인접해 유동 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로, 연평균 1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곳이다.

시는 교차로 내 11개의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고 교통섬과 신호등도 함께 정비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를 통해 시민 교통편의가 증진되고 교통사고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완도군, 관광객 여행 경비 일부 지원

'완도풀 힐링 미션 투어' 시행

완도군이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완도풀 힐링 미션 투어'를 선보인다.

완도 웰니스 관광지인 해양치센터와 해양문화치유센터, 해양기후치유센터, 약산 해안치유의 숲 등 5곳을 방문 후 개인 SNS에 인증 사진과 필수 해시 태그를 남긴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이벤트다.

웰니스 관광지 중 1곳 체험은 필수이며 관내 숙박과 식당, 카페, 특산품 판매장 이용 금액에 따라 영수증 총합 10만원 이상이면 3만원, 20만원 이상이면 7만 원, 30만원 이상이면 10만원을 지원한다.

필수 해시 태그는 #해양치유완도, #치유의섬완도, #완도풀, #완도웰니스 등이다.

여행 경비는 연간 1회 지원되며, 타지역에서 완도를 여행하고자 하는 10인 이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

완도군민과 여행사 및 11인 이상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벤트 기간은 11월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오현철 완도군 관광과장은 "먹고 즐기는 관광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완도 웰니스 관광지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여행 경비도 지원받는 일석이조의 여행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무안군,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자동차 1500만원·화물차 2056만원

무안군이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탄소중립 조기 실현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무안군은 전기 승용·화물차(총 175대)을 지원 중이며,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무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무안군인, 법인, 기업,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차종별로 전기자동차는 최대 1500만원, 전기화물차(소형)는 최대 2056만원을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전기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또는 무안군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기후 위기 시대에 친환경 에너지인 전지 자동차 보급을 추진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많은 군민이 전기자동차 구매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암왕인축제 '왕인' 수상자 현의송 선생 선정

28~31일 왕인박사유적지서 축제

영암군은 '2024 영암왕인문화축제'의 '왕인'에 학산면 출신 현의송〈사진〉 선생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왕인문화축제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왕인박사유적지 일원에서 열린다.

영암군은 지난 15일 연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현씨를 '왕인' 수상자에 선정했다.

현씨는 영암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한 뒤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농협대학 교수 등을 지냈다.

대통령 표창과 일본 농협문화상, 월출인상 등을 받았다.

현씨는 퇴임한 뒤 일본 농촌 기행을 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와 현장 연수를 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업해 농촌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개발 정책을 위한 학술 행사를 주관했다.

또 농촌 생활환경 개선 상담과 한일 농촌 지역 활성화 토론회 개최, 신토불이 운동 전개, 우수 농산물 생산 운동, 농산물 유통 개선 제안 등을 했다.

현씨는 고향인 학산면 광암마을을 해마다 찾아 경로잔치를 열고 향우회 등과 화합 활동을 했다.

'왕인'에 선정되면 영암왕인문화축제 대표행사 등에 참가하며 왕인박사의 위업을 선양하게 된다.

영암군은 지난 1999년 '왕인' 선정을 시작으로 23대 '왕인'을 선정해왔다.

출신지별 역대 왕인을 살펴보면 영암 5명, 삼호 1명, 덕진 3명, 금정 1명, 신북 2명, 시종 1명, 군서 5명, 서호 1명, 학산 1명, 미암 2명이 선정됐다.

한편 오는 28일 개막하는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실경산수 공연, 낙화놀이, 조선 통신사 행렬 등을 즐길 수 있다./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신안군 3년 만기 7.5% 금리
햇빛아동 장학적금 상품 출시

신안군이 아동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햇빛아동 장학적금' 상품을 출시했다.

'햇빛아동 장학적금'은 신안군에 주소지를 둔 18세 미만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오는 4월 19일까지 해당 주소지의 농협(북신안·압해·임자·비금·도초·남신안·신안농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재생e연합회는 올해 상·하반기 40만원씩 모두 80만원을 2025년에는 연 120만원을 햇빛수당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적금기간은 최대 3년으로 만기 시 7.5% 금리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금을 신청하지 않는 햇빛연금, 햇빛아동수당 대상자는 기존처럼 상품권으로 수령할 수 있다.

앞서 군은 지난 1월 5일 '햇빛아동 장학적금' 출시를 위해 신안군·신재생e연합회·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여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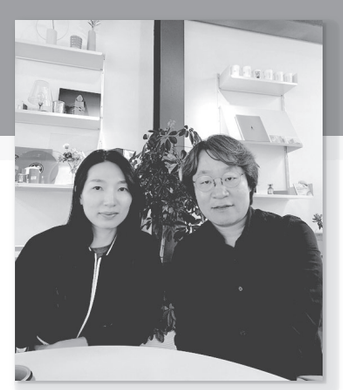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